

[로스쿨 합격기]

보통사람들의 보통합격기

강성진

- 서초고등학교 졸업
-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철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9기)



I. 시작하면서

합격수기를 읽는 이유는 합격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합격한 사람의 자랑을 듣고 싶어서 합격수기를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여의 수험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식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 글을 읽는데 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기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을 적겠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II. 입시 전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법학과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4학년 2학기인 9월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토익점수도 충분하지 않았고, LEET 문제는 구경도 못해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좋은 학점을 받으면서 토익과 LEET준비를 시작하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보통의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영어공부나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점에만 집중하는 저는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은 학점이 합격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III. TOEIC

학기가 끝나는 12월달 말부터 토익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익 점수는 가능하면 시험 전년도 12월까지, 늦어도 당해 년도 2월까지 받아 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토익에만 집중했습니다. 이하에서는 2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답노트는 많은 시행착오가, 적은 양에,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오답노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엑셀을 이용하여 오답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엑셀에 표를 만들되, 가장 왼쪽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빈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이미 정리된 오답노트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중요도 표시 칸에 숫자를 하나 더 올리고, 그 내용이 없다면 검색기능을 다시 활용하여 관련 내용과 가까운 곳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오답노트는 전체 분량을 줄여주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시험 전에는 필터기능을 이용하여 중요도가 높게 표시된 것만 따로 뽑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Listening은 문장단위로 듣고, 바로 영어로 따라 하고, 바로 한국어로 말해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대로 따라 하고, 한국어로 해석해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잘 안 들리거나 한국어로 바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체크해두고 반복했습니다. 이런 공부방법이 몸에 익으면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 방송을 들을 때 흘러 들지 않고 바로 한국어로 변환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예상외로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고,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지를 빨리 읽는 연습도 했습니다. 하나의 스크립트가 포괄하는 세 문제를 읽는 시간이 20초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IV. LEET

2월부터 LEET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LEET 문제를 풀었을 때는 100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LEET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속설들에 대해서 ‘그건 니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승리를 이룬 후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LEET 준비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원강의는 크게 기본강의와 모의고사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는 문제유형이나 문제풀이 요령을 알려주고, 모의고사 강의는 다같이 모여 시간을 측정하면서 OMR카드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인 것처럼 강의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에 불과하기도 하고, 전달하는 내용 자체도 정리해보면 A4 한 페이지를 못 채우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본강의들이 기출문제로 기본강의를 진행하는데, 시간도 측정하지 않고 강사의 설명과 함께 흘러버린 기출문제가 나중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모의고사 강의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의고사강의를 수강하면 시험기본에 자주 노출될 수 있고,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확실히 됐습니다. 또한 LEET 시험의 특성상 문제를 푸는 시간에 공부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자주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가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안 틀리는지인데 학원강사들은 지문의 내용만 설명할 뿐 제 궁금증이나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던 기간에도 모의고사를 구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 시험지와 유사한 크기로 인쇄하고, 실제 시험을 보는 시간에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오후시간엔 오전에 푼 문제들을 검토했습니다. 오후에 약속이 있는 등의 이유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면 아예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푼 직후에 검토를 해야 내가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검토할 때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지문의 문장과 문제를 비교하며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문제를 푸는 동안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효과적이지 않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당장 지금 푼 문제의 본문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읽을지, 더 정확하게 읽을지, 틀리지 않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검토한 결과를 오늘 푼 문제지 앞에 적어두고 다음날 문제 풀 때에는 전날 푼 문제지 앞에 적어둔 사항들을 한번 더 읽어보고 상기한 뒤에 새로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결된 문제점은 지우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더 강조해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지 앞에 적어두었던 저의 문제점을 상기하고 문제풀이에 임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그러하듯, 기출문제는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출문제는 LEET 기출문제와 PSAT 1차문제를 말하고, 수능 국어문제는 필요한 경우 위밍업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시험 전에 쉬운 수능 기출문제 두 개 지문 정도를 준비해가서 풀어보는 것이 위밍업에 도움이 됐습니다. LEET 시험의 문제유형이 라던가, 느낌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가벼운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LEET 입시를 시작하면 이름을 들어볼 수 밖에 없는 유명 강사들이 사력을 다하여 유사한 유형과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유형이 궁금하고, 느낌이 궁금하시다면 모의고사를 하나 풀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기출문제는 아주 자세히 분석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LEET를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 책이나 열심히 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잘 설정해야 하고, 저자를 잘 설정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지문, 철학지문, 법학지문을 주로 어려워합니다. 각자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따라 어려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LEET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어떤 주제를 어려워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한 논문을 읽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LEET 출제위원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양서적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논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과학의 경우엔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양서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하듯 설렁설렁 읽는 것은 시간만 버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지 항상 신경 쓰고, 글을 따라가는 눈이 루즈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LEET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되면 딱 그만큼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정확히 시험 한달 전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극복해보려 했지만 결국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어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시험 직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고 침착하게 시험에 임하는 것이 LEET 고득점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적을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V.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 직후의 시기에도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점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 우울함에 빠져 멍하니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놀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절대 8월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군 면접장을 나오는 순간에 입시가 끝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온갖 설명회와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디든 무작정 찾아가서 일단 듣고, 광고는 버리고 정보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설명회를 다니면 강사들이 “LEET는 학교를 정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당락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준비할 당시에는 학원의 면접과정, 자기소개서 과정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로 학교가 정해지면, 해당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LEET 점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합격여부가 LEET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서 낼 학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 결정했다면 이후의 당락은 LEET 이후의 시간(포스트 LEET라고 많이들 부릅니다)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면 LEET 잘 봐서 좋은 학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놓지도 합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VI. 자기소개서의 작성요령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네 개 내외로 정해집니다. 저의 경우에도 네 개 학교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자마자 각 학교의 전년도 자기소개서 질문지를 다운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지가 작년과 달라도, 다른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가 요구하는 내용에는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많이 적어볼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질문지가 각각 따로 있지만 한 명의 사람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그 질문지 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에 허용된 지면의 양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필하고 싶은 수험생의 입장에서서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 내용 중 증명할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제가 쓴 자기소개서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첨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편집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제목을 다는 것, 문단과 문단 사이를 띄울지 여부 등 각자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의 조건에 맞추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수없이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으셔야 하는 교수님들이 가독성 낮은 자기소개서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백 번 이상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문장을 적고, 조금이라도 더 완결성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때는 전체 글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초안을 수정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전체를 뒤엎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네, 다섯 번은 뒤집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써둔 자기소개서를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번 뒤집히고 나니 비로소 좋은 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VII. 면접과 관련하여

한번에 두 가지 준비를 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준비까지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같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면접에는 지성질문과 인성질문이 나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같이 준비하게 되면 인성질문에 대비한 생각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면접은 스터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터디의 운영, 스터디원의 성향 등이 합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와보면 어떤 스터디는 다들 합격하고, 어떤 스터디는 다들 불합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두 팀에 걸쳐 모집한 스터디원 8명중 7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동성인 남자로만 스터디원을 모아서 면접준비 외에 생길 수 있는 연애 등의 잡음을 최소화 했습니다. 스터디원이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스터디를 꾸렸습니다. 스터디 시간에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한명씩 짝을 지어서 상대방이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같은 유형으로, 그 해의 가장 화제가 되었던 주제로 바꾸어서 서로 문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터디 시간에는 실제로 나가서 문제를 풀고,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부터 의자에 앉는 것, 답변중의 자세와 태도, 말투와 표정까지 모두 서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각자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발표모습을 스터디 이후에 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교수님 역할을 맡은 스터디원들은 공격적으로 답변자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온화하게 유도해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도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고민해야 좋은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원들과의 관계는 친해지지 말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친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싸우게 되면 합격 이후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과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지인의 지인으로 엮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시에 관해서 서로 살갑게 이야기 하지만 불필요한 회식 등의 사적인 자리는 시험 전까지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면접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답변을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변입니다. 이후에 있을 교수님들과의 문답에서 좋은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 주장, 근거 재 반박, 재 반박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많이 긴장되는 실제 면접장에서 내용을 빼먹지 않고 분명하게 발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예상외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 조문을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면접시험 문제는 기본권 충돌상황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기본권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논거로 많이 사용했었고, 운이 좋게도 시험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논거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기에도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면접관도 법조문을 명시한 것에도 저의 법학에 대한 관심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VIII. 마치면서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이 보기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가 해온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우수한 인재이신 분들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 중 필요한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